

색채어 번역 —‘green’과 ‘blue’ 범주를 중심으로

진 실 로
(대신대)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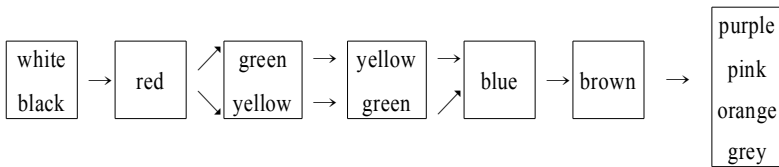
색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로써 인간의 언어에는 반드시 색채어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눈이 약 35만 가지의 다양한 색상, 명도, 채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반해 인간의 언어로는 이 같은 미묘한 색채 감각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색에 대해서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사물의 객관적인 색 뿐만 아니라 색을 통한 감정이나 느낌도 전달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언어는 생활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색채어 역시 환경과 문화에 따라 그 개수와 발달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은 흰색을 적어도 17가지로 구분해서 부른다. 거의 매일을 흰 눈 속에서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에게는 흰색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하누노어(Hanunóo)에는 검은색, 흰색, 빨간색, 녹색에 해당하는 네 가지 색이름이 있는데, 사물의 실

계 색과는 무관하게 살아있는 식물은 모두 녹색으로 구분한다(Conklin 1955).¹⁾ 심지어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 대나무 줄기를 지칭할 때도 그것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녹색으로 표현한다. 사실 프리즘에서 볼 수 있듯이 색채 공간은 연속체(continuum)이기 때문에 한 색채를 다른 색채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색범주는 작위적으로 정해지며 문화마다 고유한 체계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색범주가 달리 결정된다고 해서 여러 문화의 색범주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벌린과 케이(Berlin & Kay 1969)는 세계 여러 지역의 98개 언어를 조사하여, 보편적인 색채 범주가 존재하며 모든 언어의 색채 범주는 고정된 진화 단계를 따라 발전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11개의 보편적인 색채 범주가 존재하며,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진화된다는 것이다(<그림1>).

<그림1: 기본 색채 범주의 진화 순서>



<그림1>의 규칙은, 모든 언어에는 white와 black에 해당하는 어휘가 있으며, 만약 어떤 언어가 어휘 3개를 가지면 그것은 red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어휘가 4개이면 green이나 yellow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휘를 가지고, 어휘가 5개이면 green과 yellow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6개면 blue, 7개면 brown을 포함하며 8개 이상이면 purple, pink, orange, grey(그리고 이것들의 혼합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언어에 따라 색채 범주와 어휘의 수가 다르므로 색채어 번역시 여

1) 본고에서는 색범주와 어휘를 구분하여 어휘의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red는 통문화적 색범주를, ‘red’는 영어권에서 red를 의미하는 특정 어휘 즉 색채어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빨강은 범주를, ‘빨강’은 빨강 혹은 red를 의미하는 우리말 어휘를 나타낸다.

리 어려움이 발생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에는 두 언어 모두 11개의 색채 어휘를 갖추고 있으므로, 기본색채어의 수 자체가 달라지는 언어들에 비해 번역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색채 범주의 발달 양상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그 동안 색채어 체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국어학과 교육학, 색채학, 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 번역학의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어 간에 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green과 blue 범주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송요인(1984: 23)은 언어의 보편성과 번역이론을 논하면서 한국어의 ‘푸르다’가 green과 blue 영역에 모두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정호정(2001: 195-196)은 범주 체계의 차이로 인한 어휘상의 공백에 대해 논하면서 한국어의 ‘파란’은 green과 blue 범주를 모두 지시할 수 있으므로 영어로 번역시 ‘blue’ 뿐 아니라 ‘green’으로도 옮겨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내 번역학에서 ‘푸르다’와 ‘파랗다’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이들과 유사한 계열의 색채어인 ‘파랑’과 ‘청색’을 ‘녹색’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어의 ‘blue/green’과 한국어의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색범주와 용법 등을 비교하고 이들 색채어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번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색채어의 색범주 비교 분석

영어와 한국어는 벌린과 케이가 분류한 기본 색채 범주의 진화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언어로 11가지 색채 범주를 지칭하기 위한 11개의 기본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는 green과 blue 범주를 지칭하는 어휘인 ‘green’, ‘blue’가 개별적으로 발달한데 반해, 한국어의 ‘푸르다’는 green과 blue 모두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푸른 숲, 푸른 들, 푸른 하늘, 푸른 바다’가 모두 가능하며, 이 경우 동일한 어휘 ‘푸른’이 사용되었지만 그 지시 범주는 green과 blue로 나뉜다. 이제 사전적 의미 분석, 설문조사, 세대별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영어의 ‘blue/green’과 한국어의 ‘푸르다’ 및 유사 색채어 ‘파랗다/파랑/청색/녹

색'의 성격을 규명해 보자.

2.1 사전적 의미 분석을 통한 색범주 비교

색채어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영영사전, 영한사전, 국어사전, 한영사전을 각각 3종씩 선택하여 'blue/green'과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의 정의를 살펴보았다(부록 참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영어의 'green'과 'blue'는 그 범주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한국어의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색채어와 한국어 색채어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색범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2: 사전적 정의에 따른 색범주 비교>

영어	한국어
green	녹 색
blue	푸르다, 파랗다, 파랑, 청색

영어의 'green'은 풀이나 나뭇잎 등을, 'blue'는 하늘이나 바다의 빛깔을 지시하므로 그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푸르다'는 하늘과 풀의 빛깔을 모두 지시할 수 있으며, '파랗다'도 '푸르다'와 거의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다. '파랑'과 '청색' 역시 푸른, 혹은 파란 빛깔 정도로 설명되어 있어 결국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은 green과 blue를 포괄하는 넓은 범주를 지시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 이처럼 green과 blue를 포괄하는 색범주에 대해 벌린 부부의 공동연구(Berlin & Berlin 1975)는 grue라는 명칭을 붙여 설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그림1>의 기본 색채 범주의 진화 순서에 따르면, red 범주 출현 이후에 나타나는 범주는 green이나 yellow이고 이 두 가지 범주가 모두 나타난 후에야 blue 범주가 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이론에 의하면 red 범주 출현 이후에 나타나는 범주는 grue나 yellow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grue가 함축하는 바는 이 단계에서 출현하는 범주가 green 뿐만 아니라 blue도 될 수 있

2) '파랑'은 파란 색깔을 나타내는 명사형 색채어이며, '파란색(혹은 파랑색)'에 대해 위에 언급된 국어사전 3종은 모두 '파란 색깔'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파란색'과 '파랑'은 동일한 색채 범주를 가리키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다는 뜻이다. 즉 grue는 아직 green과 blue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색범주인 것이다. 따라서 별린 부부의 이론과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의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은 모두 이 grue 범주에 해당하는 색채어라고 볼 수 있다. <그림2>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영어의 경우 green 범주와 blue 범주를 가리키는 색채어가 각각 ‘green’과 ‘blue’로 발달한데 비해, 한국어의 경우에는 green 범주만을 가리키는 어휘는 발달했지만(‘녹색’) blue 범주만을 가리키는 어휘는 없다는 점이다.

2.2 현대 한국인의 색채 사용 방식과 색범주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푸르다’ 뿐만 아니라 ‘파랗다, 파랑, 청색’까지도 grue 범주에 속하는 색채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 한국인들이 ‘파랑’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할 때, 그 가리키고자 하는 범주가 과연 blue 뿐만 아니라 green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에서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이 어떤 개념과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세~38세에 속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해당 색채어에 대해 연상되는 대표적 사물은 다음과 같았다(복수 응답 허용시).

<표1: 한국어 색채어와 대표적 사물>³⁾



3) 설문조사 응답자 중 대부분이 ‘파란색’과 ‘파랑’은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파랑’은 어린아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어감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에서 지정한 대로 ‘파랑’과 ‘파란색’은 동일한 색채 범주를 가리키는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 연상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안의 숫자는 응답자의 명수를 가리키며 응답자가 두 명 이상인 항목만 제시하였다.

색채어	구체적 사물
푸르다	하늘(12)-산(11)-숲(8)-나무(7)-풀(2)
파랗다	하늘(20)-바다(19)
파란색	하늘(11)-바다(5)-크레파스(4)-물감, 신호등, 태극기(2)
파랑	크레파스, 물감, 파랑새(6)-바다(5)-풍선(3)-태극기, 페인트, 하늘, 신호등(2)
청색	청바지(15)-바다(4)-산, 신호등, 심해, 크레파스(2)
녹색	나무, 풀, 잔디(7)-신호등(5)-철관(3)-식물, 산(2)

‘푸르다’에 대한 대표적 연상물은 하늘과 산으로, ‘푸르다’가 blue와 green 범주에 고루 쓰이는 색채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랗다’, ‘파란색’의 대표적 연상물은 하늘과 바다이고 green 범주의 대표적 예인 식물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들 색채어는 주로 blue 범주에 사용된다고 짐작된다. ‘파랑’은 ‘-랑’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인지 주로 어린아이에 관련된 연상물이 많았으며, ‘파랗다’,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대개 blue 범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색’의 연상물도 주로 blue와 연관되나 산이라는 응답도 있어 green 범주와도 다소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녹색’은 나무, 풀, 잔디라는 응답이 각각 7명씩이었고, 식물과 산이라는 응답도 각각 두 명씩 있어 현저히 green 범주를 가리키는 어휘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green 범주를 지시하는데 있어 ‘푸르다’와 ‘녹색’의 차이점은, ‘푸르다’의 경우 연상물이 하늘, 산, 숲 등 모두 자연에 존재하는 것인데 반해, ‘녹색’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 외에 신호등, 철관 등 일반 사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호등의 경우 ‘녹색’에서 가장 많은 응답(5)이 나왔지만 ‘파란색, 파랑, 청색’에서도 각각 두 번씩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음으로는 영어 색채어와 한국어 색채어의 대응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복수 응답을 허용하고 영어의 ‘blue’와 ‘green’에 해당하는 한국어 색채어를 물었다. ‘blue’에 대한 응답은 ‘파란색’(24)-‘파랑’(16)-‘파랗다’(13)-‘푸르다’(8)-‘청색’(4)의 순이었고 ‘녹색’이라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green’에 대한 응답은 ‘녹색’(32)-‘푸르다’(10)-‘청색’(4)의 순이었고, ‘파란색’, ‘파랑’, ‘파랗다’라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다음에는 반대로 한국어 색채어를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어 색채어를 물었더니, ‘푸르다’에 대한 응답은 ‘green’(17)-‘blue’(14) 순이었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응답자도 5명에 이르렀다. ‘파랗다’와 ‘파란색’, ‘파랑’은 응답자 35명 모두 ‘blue’로 답했고, ‘청색’은 ‘blue’(22)-‘green’(10)-둘 다 가능(3) 순이었으며, ‘녹색’은 35명 모두 ‘green’으

로 답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색채어에 대한 구체적 연상물과 일치하는 색개념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어의 'green/blue'와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의 색범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색범주 비교>

영어	한국어	
green	녹색	푸르다, 청색
blue	파랗다, 파랑/파란색	

<그림3>의 색범주는 <그림2>의 사전적 정의에 따른 색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파랗다'와 '파랑'은 '푸르다', '청색'과 마찬가지로 green과 blue 범주를 모두 가리키는 어휘지만,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랗다'와 '파랑/파란색'은 blue 범주에 한정되는 어휘로 구분된다.

2.3 세대별 색채 사용 방식과 색범주의 차이

색채어의 사전적 정의와 실제 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김선희(1999)의 연구에 따르면 색채의 사용 방식은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5세~84세까지 각 연령대를 고루 반영하여 농촌 지역 거주자 93명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40세를 전후하여 색채의 사용방식이 달라짐이 밝혀졌다. 특히 파랑의 경우, 고연령층(40세 초과)의 개념은 “나뭇잎, 새파란색을 초록이라 한다”이고 하늘, 나뭇잎, 풀을 대표적 사물로 꼽았다. 저연령층(40세 이하)은 파랑에 대해 “원색, 바다의 색으로 시원한 느낌”이고, 바다, 하늘이 대표적 사물이라고 답했다.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파랑 범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4: 고연령층의 파랑 범주 분류법>

4) 이후 모든 강조는 필자의 것임.

파랑4)												
초록=파랑					하늘					옥, 양요	김푸 른	
수 박	녹	연 두	배 추	은 행	비 둘 기	소 라	청, 잉 크	남, 북청				곤
								가 지, 포도	보 라	도 라지 (꽃)		

<그림5: 저연령층의 파랑 범주 분류법>

파랑 (코발트(블루))					
청록	비둘기, 청회, 물	하늘, 소라, 옥	청, 군청, 바다	남	곤, 감청, 블루블랙

고연령층의 경우, ‘파랑’이 곧 하위범주인 초록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는데, 하나는 ‘파랑’이라는 동일 어휘가 하나의 체계에서 두 개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랑의 초점이 초록의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김선희는 고연령층의 파랑 범주 분류법에서 전체 계통을 나타내는 파랑은 광의의 파랑으로, 초록 영역을 의미할 때는 협의의 파랑이라고 칭하면서, 결국 고연령층의 체계에서는 파랑이 초록 즉 green을 초점으로 가진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저연령층의 체계에서는 파랑이 blue를 나타내도록 의미가 변화하여, 결국 ‘파랑’이 명명될 때 기억하게 되는 색이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선희는 이어서 저연령층의 체계에서도 광의의 파랑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색채 형용사 기본어인 ‘푸르다’가 ‘푸른 들’, ‘푸른 하늘’, ‘푸른 바다’와 같은 표현에서 여전히 grue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푸르다’의 파생어인 ‘파랗다’는 blue에 한정되어 사용됨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선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색범주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6: 김선희의 연구에 따른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색범주 비교>

	영어	한국어	
고연령층	green	녹색, 파랑(협의)	푸르다, 파랗다, 파랑(광의)
	blue	청색	
저연령층	green	녹색	푸르다
	blue	파랗다, 파랑, 청색	

앞 절에서 행해진 설문조사는 40대 이하의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그림3>)를 저연령층에 대한 김선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일치하는데 ‘청색’에서만 차이가 발생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색’은 주로 blue를 가리키지만 green도 가리킬 수 있는데 반해, 김선희의 연구에 따르면 ‘청색’의 사용은 blue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4 한국어 색채어 체계와 발달 양상

지금까지 색채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분석과 설문조사, 세대별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연구 결과에 따른 색범주 구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어휘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 색채어의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색채어의 특성 중 하나는 고유 색채어와 한자 색채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한국어 색채어의 진화과정에서 먼저 나타난 것은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인데, 이들은 오방색(五房色)에 해당하는 고유 색채어이다(김기찬 2000:31).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이에 근거한 색채문화를 지녀왔기에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을 지시하는 색채어가 먼저 발달했던 것이다. 후에 한자 색채어가 차용되면서 ‘흑(黑), 백(白), 적(赤), 청(靑), 황(黃)색’이 도입되었고, 이 때 비로소 ‘녹색’(綠色)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고유 색채어 중 ‘푸르다’의 어원은 ‘풀’이다(최창렬 1986:24). ‘푸르다’의 옛말은 ‘프르다’이고, 이 ‘프르다’는 ‘풀+다’의 조어구조를 갖는다. 즉 ‘푸르다’는 땅에서 자라는 풀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하늘의 빛깔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푸르다’의 적용 범위는 green과 blue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색과 풀의 색을 가리키는데 모두 ‘푸

르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하늘의 푸르다는 개념과 풀의 푸르다는 개념은 서로 색채 영역이 일치하지 않기에, 한자 색채어가 차용되면서 '푸르다'가 '녹색'과 '청색'으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분화 이후에도 '푸르다'는 꾸준히 사용되어 왔으나 특이한 점은 분화된 '청색' 역시 blue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green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사진'(靑寫眞)의 '청'은 blue를 지시하지만, '청과'(靑果)의 '청'은 green을 지시한다.

이처럼 '청색'의 지시범주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 특유의 색채의식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은 색채를 감각-지각적 체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음양오행적 우주관의 이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색채를 생활화하였다(하용득 1989). 게다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생활의식을 지배하였던 유교적 사고방식은 인간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떨리하고 인격과 형식, 규범을 중요시했던 사상이기 때문에 색이 있는 것은 곧 천하고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한국인은 직접적으로 색채에 감정을 이입하거나 투사하는 대신 어떤 의미부여를 통해서 은근히 표현하곤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인이 사용하는 색채어 가운데서 집약적으로 가장 잘 쓰이는 것이 바로 '청색'과 '백색'이었다. 예를 들어 청송(靑松), 청산(靑山), 백운(白雲), 백로(白鷺) 등은 한국인의 이상적 인간상의 이미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때 백색의 대표적인 아날로지는 학(鶴)이고 청색의 대표적인 아날로지는 송죽(松竹)이다. 즉 청색은 단순한 시각적 색채라기보다는 송죽의 이미지가 포함된 상징적 색채로서도 기능하며, 이를 '전통적 개념의 청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선(1998)의 연구에 따르면 먼셀색채공간에서 '청색'이 차지하는 영역은 10BG~10PB로 현저히 blue 범주에 치우쳐 있고, 김선희의 연구에서도 고연령층과 저연령층 모두 '청색'을 blue 범주 지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청색'은 blue 범주에 한하는 색채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색'은 green과 blue 모두를 지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청색'과 대조하여 '현대적 개념의 청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행한 설문조사의 경우 '청색'에 해당하는 영어 색채어를 묻는 질문에 'blue'(22)-'green'(10)-둘 다 가능(3) 순의 응답이 나온 것은 '현대적 개념의 청색'과 '전통적 개념의 청색'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어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어휘들과 새로 생겨난 어휘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청색'이 포함된 어휘들에도 '전통적 개념의 청색'과 '현대적 개념의 청색'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정의와 설문조사, 김선희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파랗다'에서 발생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파랗다'는 '푸르다'와 마찬가지로 green과 blue 범주를 모두 지시할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2003)의 예 "이제 순이 파랗게 터져 오르는 싸리밭에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었다"에서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학에서는 '파랗다'가 '푸르다'에서 파생된 어휘이며, 기본형인 '푸르다'를 중심으로 푸른빛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김기찬 2000:42): '푸르다, 포/파르스름하다, 퍼/푸르스름하다, 파/포르무레하다, 퍼/푸르무레하다, 파/포르깨하다, 퍼/푸르깨하다, 파/포르속속하다, 퍼/푸르속속하다, 파랗다/퍼렇다, 파/포르족족하다, 퍼/푸르족족하다, 새파랗다/시퍼렇다, 검푸르다'. 즉 '푸르다'와 '파랗다'는 같은 종류의 색채어이며 다만 채도와 명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파랗다'에 대한 영어 색채어는 응답자 모두 'blue'로 대답하여 그 중심이 현저히 blue 쪽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선희 역시 저연령층의 경우 '파랗다'를 blue 만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청색'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파랗다' 역시 blue 범주에 많이 쓰이되 경우에 따라 green 범주를 가리키는 어휘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2.5 번역과 색채어 범주 분석 결과의 적용

지금까지 영어의 'blue/green'과 한국어의 '푸르다/파랗다/파랑/청색/녹색'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색채어는 고유 색채어와 한자 색채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와 용법 면에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푸르다'와 '파랗다', '청색'은 색범주가 green과 blue에 걸쳐 있어 번역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동인의 「배따라기」중 다음 몇 구절을 통해 '푸르다'와 '파랗다'의 번역 예를 살펴보자.

<예문1>

원 문: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 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돌아나는 풀 위에 덩굴고 있었다.
(p.165)

번역문: I was relaxing on the greening grass at the foot of Peony Hill,
gazing on the Taedong River which incessantly poured its blue
waters into the Yellow Sea. (서지문 역 11)

<예문2>

원 문: 아아. 사람을 취케 하는 푸르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165)

번역문: Ah, the beauty of the green spring that intoxicates men! (11)

<예문3>

원 문: 그리고 또 꽤 자란 밀보리들로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
빛. (166)

번역문: the green fields adorned with the bluish-green ripening wheat and
barley. (11)

<예문1>의 ‘푸른’은 대동강의 물빛을 지시하므로 ‘blue’로, <예문3>의 ‘푸른빛’은 장림(長林)의 빛깔을 지시하므로 ‘green’으로 번역하였다. <예문2>의 ‘푸르른’은 봄을 수식하고 있는데, 봄은 새싹이 돌아 온통 녹색으로 물드는 계절이므로 ‘green’으로 옮겼다. <예문1>의 ‘새파랗게’는 그 빛깔이 매우 산뜻하게 질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막 돌아나는 풀의 빛깔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gree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문3>의 ‘새파랗게’도 밀보리의 산뜻하고 짙은 빛깔을 지시하므로 ‘green’에 해당하나, 번역가는 ‘bluish-gre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름의 숲처럼 진한 녹색과는 다른, 아직 덜 성숙했지만 매우 신선한 봄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어울려 쓰이는 말에 따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미아 윤(Mia Yun)의 *House of the Winds*에 나오는 ‘blue’와 ‘green’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blue’가 나오는 표현부터 살펴보자.

<예문4>

원 문: But later, when the sky turned into a huge dark blue dome, they
became pale, blue-tinged porcelain. (4)

번역문: 그러나 이윽고 저녁 하늘이 거대한 암청색 지붕으로 바뀌고 나면,
창백한 푸른 기운이 도는 도자기로 바뀌었다. (김연수 역 14)

<예문5>

원 문: ... against the mauve blue space. (67)

번역문: 연한 자줏빛을 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99)

<예문6>

원 문: The old lady returned with fruit carved and arranged like flowers
on a large blue plate. (37)

번역문: 노파는 푸른색 큰 쟁반에 꽃 모양으로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다.
(60)

<예문7>

원 문: And the light blue one with white polka dots. (78)

번역문: 그리고 하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밝은 파란색 옷이 있었다.
(112)

<예문4>의 'dark blue'는 '암청색'으로, <예문4>, <예문5>, <예문6>의 'blue'는 '푸른(색)'으로, <예문7>의 'blue'는 '파란색'으로 옮겨져 동일한 어휘 'blue'가 경우에 따라 '청색', '푸른색', '파란색'으로 번역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푸르다' 색채어가 blue 범주를 가리킬 때는 <예문5>의 '하늘'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예문6>의 '쟁반'처럼 일반적인 사물을 수식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green'이 포함된 표현들의 번역 예이다.

<예문8>

원 문: I knew soon she would pluck that sticky-looking green bottle
sitting on the raw pine shelf. (11)

번역문: 나는 곧 아줌마가 다듬지 않은 소나무 선반 위에서 끈적끈적해 보이는 녹색 병을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5)

<예문9>

원 문: There, the road slanted up continuously toward Nam San, a dark
green peak swelling in the middle of the city. (35)

번역문: 길은 도시의 한가운데 솟구친 푸른 봉우리인 남산을 향해 끝없이 이어졌다. (57)

<예문10>

원 문: We stood in the middle of tall summer weeds at the edge of a scallion field and saw a green hill (97)

번역문: 우리는 파밭 가장자리의 여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서 ... 푸른 언덕을 바라봤다. (135)

<예문11>

원 문: Green frogs cried at river bends when it rained worrying about mother frog's graves being washed away. (24)

번역문: 비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이 강가에 모여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빗물에 떠내려 가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울어댄다. (42)

<예문8>에서는 ‘green’이 ‘녹색’으로, <예문9>와 <예문10>에서는 ‘푸른’으로 옮겨졌고, <예문11>의 ‘green frogs’는 ‘청개구리’로 번역되었다. 동일한 색채어 ‘green’이 경우에 따라 ‘녹색’, ‘푸른색’, ‘청색’으로 옮겨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푸르다’ 색채어가 green 범주를 가리킬 때는 봉우리나 언덕 등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물만을 수식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의 <예문5>, <예문6>에서 봤듯이 blue를 지시하는 ‘푸르다’의 경우 자연 대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물도 수식할 수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앞 선 설문조사에서도 색채어와 연상물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표1>).

이번에는 청자(靑磁)에 관한 번역을 통해 ‘청색’의 번역 예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청색’은 전통적인 개념인지 현대적인 개념인지에 따라 그 지시하는 범주가 다르므로 번역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청자의 실제 색은 밝고 은은한 녹색에 가깝지만, 예로부터 청색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한국인들은 우수함과 독특함, 품위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녹색’ 대신 ‘청색’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청색’보다는 실제 색깔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코리아포스트』지(誌)는 고려청자를 Koryo blue celadon으로 번역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도자

기 용어사전에서도 역시 Koryo blue celadon으로 번역하고 있다.⁵⁾⁶⁾ 도자기에 대한 평론을 실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비슷하게 the blue Koryo celadon으로 번역하였다.⁷⁾ 고려청자를 사진으로 혹은 실물로 직접 보지 않아 그 실제 색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파란(blue) 도자기를 떠올릴 것이다. 정시화(2001:175)는 청자의 이런 독특한 면을 고려하여 unique green celadon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 색개념으로서의 ‘청색’을 고려해 볼 때 정시화의 번역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3. 결 론

문화에 따라 색범주의 분류가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색채어의 번역은 번역의 근본 문제 중 하나인 등가성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색채어 번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본문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를 비교 연구하면서 색채어들의 사전적 정의와 실제 용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계속해서 변화를 겪는 언어의 특성 상 색채어 역시 그 의미와 용법, 사용빈도 면에서 변화를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색채어의 번역 문제는 통시적인 연구와 공시적인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코퍼스를 통해 각각의 색채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고유 색채어와 한자 색채어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이들 색채어 간에는 단순히 어휘 구조 뿐만 아니라 의미 및 용법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빨강’과 ‘적색’은 유의어임에 분명하나 실제 사용에서 그 의미와 용법은 다를 수 있으며, 각각 초점 및 경계가 이동하고, 사용 빈도도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텍스트의 종류와 맥락, 사용역에 따라 어울리는 색채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색채어 번역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전체적인 번역

5) Koreapost, March 1994, p.38 “Koryo blue celadon masterpiece of all time”

6) http://www.ceramicstour.com/term/term_5.htm

7) http://www.dadoart.com/ykc_article.htm

수준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KCS I

부록 - 색채어의 사전적 정의 목록

영영 사전 3종 비교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01)	blue	any of a group of colors whose hue is that of a clear daytime sky, the hue of the visible spectrum lying between green and indigo
	green	any of a group of colors whose hue is that of growing grass, the hue of the visible spectrum lying between yellow and blue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001)	blue	the color of the clear sky or the sea on a fine day
	green	the color of the grass and leaves
Merriam-Wepster's Collegiate Dictionary (2001)	blue	a color whose hue is that of the clear sky or that of the portion of the color spectrum lying between green and violet
	green	a color whose hue is somewhat less yellow than that of growing fresh grass or of the emerald or is that of the part of the spectrum lying between blue and yellow
영한 사전 3종 비교		
두산동아프라임 (2003)	blue	청색, 하늘색, 남색
	green	녹색, 초록빛, 풀빛
금성뉴에이스 (2002)	blue	푸른색, 하늘색, 청색, 남색
	green	초록색, 풀빛
민중엡센스(2002)	blue	파랑, 청색, 남빛
	green	녹색, 초록색
국어 사전 3종 비교		
민중엡센스 (2002)	푸르다	하늘빛·초록빛과 같은 빛이다.
	파랗다	매우 푸르다. 아주 푸르다.
	파랑	파란 물감이나 빛깔
	청색	푸른 빛깔
금성뉴에이스 (2002)	푸르다	하늘빛이나 풀빛이나 쪽빛과 같다.
	파랗다	(어떤 물체나 물질이) 맑은 하늘의 빛깔을 가진 상태에 있다. 넓게는 녹색과 남색을 포함할 수도 있음.
	파랑	파란 빛깔
	청색	삼원색의 하나. 무지개 중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색깔. 맑은 날의 하늘과 같은 색깔임.
연세한국어 (2003)	푸르다	맑은 하늘이나 싱싱한 풀의 빛깔과 같다.
	파랗다	맑게 푸르다.
	파랑	파란 색깔
	청색	푸른 빛깔
연세한국어 (2003)	녹색	파랑과 노랑의 중간 색깔. 풀빛

한영 사전 3종 비교		
두산동아프라임 (2003)	푸르다	blue, azure, green
	파랗다	blue, azure, green
	파랑	blue (color), green
	청색	blue(green) color, blue, green
	녹색	green, a green color
금성뉴에이스 (2002)	푸르다	blue, azure, green
	파랗다	blue, azure, green
	파랑	blue, azure, skyblue, green
	청색	a blue color, green or blue, azure
	녹색	a green color, green
시사엘리트 (2002)	푸르다	blue, azure, green
	파랗다	blue, azure, green
	파랑	blue, azure, skyblue, green
	청색	a blue color
	녹색	a green color, green

참고문헌

- 김기찬. 2000. 「영어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의 비교 분석」, 『언어과학연구』 18, 21-48.
- 김동인. 1994. 「배따라기」, 『한국현대문학대계3』. 서울: 민음사, 165-181.
- 김선희. 1999. 「한국의 색채 범주 구분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문학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 1998. 「한국어 기본 색이름과 색채공간 표상영역」.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윤미아. 2001. 『파란 대문 집 아이들』. 김연수 역. 서울: 이끝리오.
- 정시화. 2001. 「한국인의 색채의식」, 『색색가지 세상』. 권영길 외 27인, 서울: 국제출판사, 170-176.
- 최창렬. 1986. 『우리말 어원 연구』. 서울: 일지사.

- 하용득. 1989.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서울: 명지출판사.
- Berlin, B. & P. Kay.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rlin, B. & E. Berlin. 1975. "Aguaruna Color Categories", *American Ethnologist* 2:1.
- Cheong, Ho-Jeong. 2001. "How to Bridge Lexical Gaps As Reflective of Different Categorization Systems-Assessing Chunking-up and Chunking-down Tactics", 『번역학연구』2:2, 187-221.
- Conklin, H. C. 1955. "Hanunóo Color Categories",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11.
- Suh, Ji-moon. 1998. "The Seaman's Chant", *The Rainy Spell and Other Korean Stories*. New York: M.E.Sharpe/Unesco Publishing, 10-24.
- Song, Yo-In. 1984.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 Seoul: Han Shin Publishing Company.
- Yun, Mia. 1998. *House of the Winds*. New York: Penguin Books.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ng Color Terms
—Focused on ‘Green’ and ‘Blue’ Ranges

Chin Silo
(Taeshin Christian University)

Color is essential to human life and every language has color terms. The color spectrum is physically continuous, and different languages can carve it up in arbitrary ways. In other words, the boundaries between the color ranges differ from language to language. This study focuses on the gap of color ranges between Korean color names and corresponding English color names. Traditionally Korean language consists of two levels- Korean native words and Chinese loan words. Korean color terms also have five native color names and more Chinese loan color names. Generally Korean and English have the same number of basic color-designating words. Each color name seems to have a corresponding word. However the Korean native words ‘pureuda’, ‘parata’ and Chinese loan word ‘cheongsae’ cover not only ‘blue’ but also ‘green’ in English. Particularly, the color range of ‘cheongsae’ is confusing because the traditional color concept of ‘cheongsae’ is different from its contemporary color conce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usage of these color terms and search for good translations of color terms between English and Korean.

▶주제어: 색채어, 색채어 번역, 색범주, 색채, blue, green